

# 북한민주화 외부지원 필요할때

한국일보 유홍주칼럼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2/23/2011

중동국가와 북 아프리카 사태는 우리들에게 반민주 독재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중국에는 시민대중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파멸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우리는 이집트의 반독재 투쟁을 거울삼아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와 원칙, 절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특히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위해 외부지원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중동과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 감시와 처벌이 같은 독재 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이다. 북한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화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집트 민주화운동의 촉매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의 구축도 되어있지 않다는게 그 이유다.

3 대 세습체제가 가능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은 탄압과 무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는 14 곳 의 수용소에 약 20 여만명을 정치범을 잡아넣고 있다. 혁명이 성공한 이집트와 혁명의 불씨마 저 드문 북한의 가장 큰 차이 몇가지를 짚어봤다.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번째 원인으로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꼽을수 있다. 중동국가와 이집트는 독재국가이긴 했지만 개방적이었다. 국민들이 마음대로 출국과 입국을 할수 있다. 이집트에는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 객들이 이집트의 역사·문화 유적을 보기 위해 자유롭게 방문했고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다.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폐쇄 국가다. 북한에서 외국인을 보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외국인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관광 구역에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은 들어갈 수없다. 외국인을 접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접할기회가 없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는 젊은 연령층들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말과 글을 매개로 힘을 결집했다고 보아진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통해 정보를 교류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의식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터넷 정보 유통의 파급 력을 알고 있기에 북한 김정일은 북한 내에서 인터넷 정보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것도 아니다. 정보는 김정일을 위시한 그 측 근들과 지도층만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북한 민주화 운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연좌제라고 할수있다.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자의 가족들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직계가족에 적용한다. 이같은 여러 장애물로 인해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외부 정보를 얻으면서 그들의 의식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한국의 민간대북 방송들은 북한을 향해 전파를 쏘아 주민들의 마음에 민주화의 씨앗을 심고 있다. 대북 풍선날리기 운동을 통해 북한 지역에 라디오, 중동국가의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전단지들 뿌리며 북한 실체를 폭로하는 DVD, 美화폐 등도 꾸준히 뿌려지고 있다. 지금 북한 민주화운동의 씨앗이 잘자라도록 외부의 지원이 절실이 필요할 때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함께 세뇌교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상천국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행들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래 에서 위로의 혁명 보다는 권력다툼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크다. 예를 들면 엘리트 그룹간 권력투쟁 같은 것이다. 결국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김정일 또는 김정은에 환멸을 느낀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도 민주혁명으로 부터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김정일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끝)